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5
IV. 국제신인도	7
V. 종합 의견	8



I. 일반개황

면적	29천 Km ²	G D P	11억 달러(2013년)
인구	0.56백만명(2013년)	1인당 GDP	1,944달러(2013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대외정책	친서방, 친대만정책	환율(달러당)	7.30 (2013년 평균)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국가임.
- 벌목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농업국가이며, 입지상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음. 목재 및 수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이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대체로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다만, 최근 금 등 광물자원 개발로 1차산업 비중 감소가 예상됨.
- 내각제 형태의 정부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간 이합집산이 빈번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낮은 모습을 보였음. 또한, 종족간 갈등으로 심화된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호주를 중심으로 한 역내국이 솔로몬군도 공동지원단(RAMSIS)을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승인을 유지하면서 장학생 초청, 의료사업 등 대만의 원조를 받고 있음. 한편,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2010년부터 IMF의 지원을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7.8	10.7	3.8	3.0	0.1
재정수지 / GDP	6.2	9.0	3.9	4.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1.0	7.4	5.9	5.4	7.0

단위 : %

자료: IMF 및 EIU.

□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칠 전망

- 목재 및 통나무, 금, 팜오일, 코코아, 참치캔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목재, 금, 농수산물 가격 변동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높은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 2011년까지 고속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2012년 이후 원자재 가격 안정화, 목재, 금 등의 생산량 감소로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로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4월 솔로몬군도의 수도인 호니아라 인근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교통,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유일한 금광인 Gold Ridge 광산의 생산도 중단되었음.

□ 홍수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7%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시현

- 식료품과 유류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에 민감한 구조임.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화, 환율제도 개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성장세 둔화 등으로 5.9%로 하락함.
 - 2012년 솔로몬군도 중앙은행은 미달러화 고정환율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변경하였음.
- 2013년에는 수입물가 하락,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한 유통체계 마비 및 식료품 생산량 감소로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수지는 적자 전환

- 성장세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 등으로 최근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4% 내외를 기록하였음.
- 솔로몬군도 정부는 총선 실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감안하여 2014년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홍수로 인한 세수 감소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GDP의 1.6%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수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3년 기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 반면, 무역, 교통, 통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비중은 39%, 팜업 및 제조업 비중은 11%에 불과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제조업 기반이 부실함.
 - 특히, GDP의 약 16%를 차지(2012년 기준)하고 있는 벌목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기후환경 악화, 남벌 등으로 수목자원이 점차 고갈되면서 벌목업 기반이 악화되고 있음.
- 전임 고든 릴로(Gordon Lilo) 총리가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금, 아연 등 미개발 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 가능성 내포

- 금, 아연, 니켈 등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 개발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9월 니켈 생산권에 대한 개발사간 분쟁이 종결되면서 니켈 개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음.
- 다만, Gold Ridge 광산 개발과 관련된 개발사(호주의 St. Barbara사)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 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열악한 인프라, 불법 채굴 만연 등은 자원 개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재정개혁 실시

- 대외 원조자금이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IMF 및 원조기관의 요구로 각종 재정개혁이 진행되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솔로몬군도는 2013년에 공공재정관리법 제정, 국영기업의 차입 지침 마련, 면세제도 개편, 2014년에는 광업 세제 및 금 수출세 개편,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였음.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경 상 수 지	-379	-225	2	-92	-171
경 상 수 지 / GDP	-55.6	-25.9	0.2	-8.4	-14.7
상 품 수 지	-137	1	47	-23	-134
수 출	224	418	493	440	352
수 입	360	418	446	463	486
외 환 보 유 액	251	397	454	476	476
총 외 채 잔 액	231	258	228	224	268
총 외 채 잔액 / GDP	33.8	29.6	23.1	20.6	23.0
D. S. R.	6.0	2.6	4.5	2.5	3.1

자료: IMF 및 EIU.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목재, 광물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를 시현함.
- 주요 수출품의 가격 안정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상품수출액이 2012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상품수입 증가세는 지속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14년에는 태풍 피해로 광물 등 주요 수출품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약 1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IMF의 금융지원 이후 외채 여건은 대체로 개선

- 2010년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2013년까지 경상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D.S.R.도 2010년 6.0%에서 2013년 2.5%로 하락함.
- 2014년에는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정체되고 총외채잔액 대비 GDP 비율도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23.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평화롭게 완료된 2014년 총선에서 현 총리 실각

- 2014년 11월 총선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으며, 총 50석 중 35석을 무소속 의원이 차지하여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진행되고 있음.
- 고든 릴로 전 총리는 낙선하였으며, 동국 정치통합법(Political Parties Integrity Act)에 따라 당선된 무소속 의원이 입당할 정당을 선택한 이후 최대 다수당이 총리를 지명함.
- 2006년 선거 이후 총리 당선자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유혈사태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 2010년에 이어 총선이 평화적으로 실시된 점은 긍정적임. 다만, 내각 구성 결과에 따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치세력간 이합집산이 빈번하여 정치 시스템이 불안정

-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에 따라 빈번하게 정당을 이동하면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빈발 등 각종 정치 시스템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였음.
- 총리 선출방식 변경, 정당 내부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통합법 시행(2014년 6월)으로 정치적 안정성 제고가 개선이 기대되나,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금지기간 미설정 등 미흡한 부분도 남아있음.

2. 사회동향

□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안정 유지

- 수도인 호니아라 원주민인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등 주변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정세 불안으로 이어진 경험을 갖고 있어 국민통합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있음.
- 2014년 5월과 8월에 정부의 홍수 이재민에 대한 지원 불충분, 개발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 확산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
- 종족간 무력 충돌에 따른 사회불안 심화로 2003년 호주를 주축으로 한 인접국이 파견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이 사회안정에 기여함.
- 2013년 RAMSI 소속 군인은 모두 철수하였으나, 솔로몬군도 정부가 자국 경찰 재무장에 따른 혼란 재발을 우려함에 따라 RAMSI의 경찰 인력은 2017년까지 잔류하면서 솔로몬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할 예정임.

3. 국제관계

□ 2000년대 후반 이후 호주와의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

- 호주는 솔로몬군도의 최대 수출국이자 원조 공여국으로, RAMSI 파견을 주도하는 등 대체로 솔로몬군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Sogavare 총리 정부의 RAMSI 비난, 호주대사 추방 등으로 한 때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Sikua 총리 집권(2007. 12월)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었음.
- 2014/15회계연도 호주의 대 솔로몬군도 원조 예산은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솔로몬군도에 약 1,500명의 호주국민이 거주하고 있어 경찰청장 등 주요 직위에 호주 국민이 임명되는 사례도 있음.

□ 대만 정부에 대한 승인 유지를 통해 대만의 각종 지원 확보

- 솔로몬군도는 여전히 대만 정부에 대한 승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만 정부는 2008~09년에 솔로몬군도의 국회청사 및 의원사무실 건립 지원에 동의하였으며, 농업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의료지원, 장학생 초청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IMF의 차관 사용중

- 솔로몬군도는 2010년부터 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0년, 2011년에는 1년 만기의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부터는 포괄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을 활용하고 있음.
-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자료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8년 9월 1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어업협정(1980년), 무상원조기본협정(2012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솔로몬군도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741	1,790	1,837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농약및의약품
수 입	12,511	11,024	13,235	목재류, 반도체, 알루미늄
합 계	13,252	12,814	15,072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기준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가 수출액의 57%, 목재류가 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는 15백만 달러 규모임.
- 솔로몬군도는 우리나라의 제109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동국 앞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9월말 기준 4건, 2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목재, 금 등 주요 수출품의 생산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입물가 하락과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2012년과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홍수로 인한 유통 체계 마비 및 식료품 생산량 감소로 7.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에 힘입어 2012년과 2013년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의 1.6%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출은 2012년 이후 위축된 반면, 각종 투자사업 추진으로 수입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11월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이 다수 당선됨에 따라 신내각 구성 작업이 진행중이며, 부족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나 정부가 국민통합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등 인접국이 파견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이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 2014년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23%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1%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IMF의 금융 지원을 받고 있어 지급불능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